

보도시점

2025. 11.18.(화요일) 17:00

배포

2025. 11.14.(금요일) 15:00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강연

- 문화원 3 층 아리홀, 11 월 18 일 오전 11 시 -



LA 한국문화원(원장 이해돈)과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관장 체이스 로빈슨)은 11 월 18 일(화) 오전 11 시, LA 한국문화원 3 층 아리홀에서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Korean Treasures: Collected, Cherished, Shared) 특별전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대표작 전시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를 미서부 지역에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LA 특별강연에는 체이스 로빈슨 관장과 황선우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미술과 문화 어시스턴트

큐레이터가 직접 참석해 전시의 취지를 설명하고 전시 관련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은 이번 특별전에서 이견희 컬렉션에서 엄선한 주요 작품을 미국에서 처음 공개한다. 국가 지정 국보와 보물 20 여 점을 포함해 총 200 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고대 불교 조각과 도자기에서부터 회화, 목가구, 20 세기 근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약 1,500 년에 걸친 한국 미술의 역사를 포괄한다.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미술 전시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포괄적인 전시로 평가받는다. /끝/

체이스 로빈슨(Dr. Chase Robinson), NMAA 관장

로빈슨 관장은 이슬람 역사와 문화 전문가로, 브라운대 졸업 후 하버드대 근동 언어 및 문명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옥스퍼드대 동양학부 교수와 뉴욕 시립대 총장을 역임했다.

황선우(Dr. Sunwoo Hwang), 큐레이터

황선우 큐레이터는 2024 년 4 월부터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 한국문화예술 담당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미국 시카고대에서 인문학 석사 학위를, 동국대에서 불교미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담당 부서	LA 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이해돈 (323-936-7141)
	문화사업담당	담당자	팀장	조혜민 (323-936-3014)

